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뼈?뼈!〉 공개강연
–문화를 읽는 새로운 코드, 고인골–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4시

고(古)인골 연구

김 재 현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이 강연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연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강연 5분 전까지 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연 시작 이후부터는 강당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강연 중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변경 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김해박물관 〈뼈?뼈!〉 공개강연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4시

고(古)인골 연구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즈디자인 / 070-7380-0641

1. 또 하나의 고고자료, 인골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인골연구의 이미지는 화석인골을 포함한 계측이 중심이어서 계통학, 지역차, 시대변천 등의 연구에 한정되고 있다. 그것은 처음의 인골 연구가 인류학자들에 의해 인종론과 같은 전통깊은 학문적 축적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골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그 뿐만이 아니다. 형질학적인 분석도 개체식별, 연령추정, 성별판정, 신장(키) 추정, 형태변이(지역변이·집단차·시대차·계통차), 생활(이)력(생업, 생활습관, 계층차, 발치, 두개변형, 전족, 임신·출산, 이상증후, 외상·골절), 인구구성, 평균수명, 혈연관계 등을 밝힐 수 있으며, 더욱이 안정동위체분석에 의한 식성분석, DNA분석에 의한 계통론, 집단차, 시대변화, 성별판정, 혈연관계 등도 밝힐 수 있다.

한편으로 유적에서의 인골 상태, 즉 두향, 매장자세, 매장순서, 매장간격, 이차적 이동(개장, 집골, 습골), 신체 절단의례, 복상발치, 부장품·유구와의 관계 등 정보는 고고학적으로 매장습속을 알게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들 정보와 앞의 인류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묘역의 구조나 친족관계, 피장자의 생활력 등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출토 인골로부터 성별·연령·신장이나 계통론만이 아니라 많은 정보가 얻어져, 인류학에서 얻어지는 정보 대부분이 현재는 고고학에도 필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 이제까지 유적조사를 행하면서 발굴에 연동한 유구·유물의 분석은 고고학자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출토 인골에 대해서는 출토와 동시에 수거되어, 인류학자나 해부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는 분업체계가 보통이었다. 그러나 인류학이나 해부학의 학문적 경향이 변화하여, 인골 연구자가 거의 희박한 상황을 감안할 때, 발굴된 인골 자료를 전적으로 인류학이나 해부학에 의뢰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

게 되었다. 본래 발굴조사의 현장에서 관찰· 기록이 행해지는 이상, 조사한 인골은 고고학과의 상호 정보교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분업체계가 어렵다면 고고학 측에서 인골의 지식과 조사법을 익혀, 최소한 발굴단계에서 정리, 복원, 계측, 보고 내지는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인골도 고고학에서 발굴되는 많은 다른 유물과 같이 고고학적 자료로써 취급되어 연구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적이나 유구에서는 인골이 발굴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고고학자들 관심(연구)은 유물에 거의 쏠려 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결코 있어서 안 되는 사실 하나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유물들이 거기에 묻혔다"는 점이다.

2. 우연과 필연의 자료, 인골

한국의 발굴현장 대부분은 인골이 출토되지 않는다. 그 만큼 인골의 검출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토양과 관련이 깊다. 건조한 사막이나 추운 동토나, 저습지 같은 일반적 생활환경이 아닌 곳이 되려 인골 또는 미이라 출토 보고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실크로드의 타클라마칸사막, 누란유적에서 갓난아기와 같이 매장된 여인의 인골이나, 스키타이계인 파지리크의 분구묘에서 출토한 상반신 문신의 추장, 그린란드 이누이트족 집단묘에서 발견된 8개체의 미이라, 알프스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외찌인, 영국 린도우 토탄늪과 덴마크 토탄늪에서 발견된 철기시대 린도우인과 톨룬트인이 그와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앞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것은 무조건 건조하다고, 또는 춥거나 습하다고 모두 다 인골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너무도 우연의 것들이 겹쳐진 결과이다. 2002년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파평윤씨 미이라의 경우도 죽

은 날이 추운 12월인 점, 종친에서 다른 용도였는지 묘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점, 출산 중 사망한 후 묘에 묻히기까지 빈소가 차려진 기간동안 혹한에 사체가 자연 냉동상태를 유지하여 부식되지 않았다는 점, 묘가 부유한 양반의 회곽이어서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차단의 진공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진공상태에서 회성분이 알칼리성을 유지해 더더욱 부식을 막았다는 점 등 어느 하나 우연 아닌 우연의 연속이지만, 너무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조건들이 파평윤씨의 미이라를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한, 필연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인위적으로 죽은자를 썩지않게 하기 위한 이집트 미이라의 노력에 비해 실제 발견되는 미이라의 수를 생각한다면 우연히 미이라나 인골이 남게 된 경우는 정말 우연의 우연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 인골의 경우도 처음부터 매장할 때에 유해를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만큼, 잔존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인골이 검출되는 경우는 매장된 지역이 우연히 패총이거나 석회암 지대여서 유골의 부식과정에서 생성되는 산과 알칼리성 토양이 중화된 결과이다. 그러한 예로는 연대도유적, 사천 늑도유적, 김해시 예안리고분군, 동해시 추암동고분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모래땅에서 인골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부식되며 산화하는 살이 모래의 배수작용으로 인하여 뼈 주위에 머물지 않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예로서는 원주 법천리고분군, 제주 곽지해수욕장에 인접한 금성리분묘군이 있다. 그리고 저습지와 같이 수분을 유지하는 뻘 속에서 살은 부식되어도 물의 성분에 따라 인골은 계속 남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경주박물관 부지내의 신라우물 속에서 나온 어린이 인골이 그러한 예이다. 즉 단순한 하나의 요인만이 인골을 검출하게 하는 원인은 아니며 여러 가지 우연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을 때, 비로서 인골은 검출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실제 발굴에서 인골이 항상 출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연한 제반 조건들의 작용에 의해 인골 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인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검출되었다기보다는, 발굴 담당자의 노력과 인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했기 때문일 것이다. 간혹 현장에서 인골이 검출되었을 경우, 곧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질문을 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바로 그러한 의문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때도 있다. 그것은 검출된 인골, 대부분은 습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마치 물에 젖은 비스켓과도 흡사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 노출된 상태에서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하더라도 무리하게 만지거나 장시간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면 곧 가루로 되어 파손된다. 그러므로 인골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최대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기록한 다음, 신문지에 싸서 수거한다. 신문지는 습기의 흡수력이 뛰어나며 현장에서도 비교적 쉽게 구해지기 때문이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신문지나 종이봉투를 권하고 있다. 그리고 두개골이나 골반은 특히 주의하여 탈지면으로 먼저 싸거나 두른 후, 신문지에 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탈지면 대신 화학솜을 사용한다든지, 신문지에 싼 뼈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밀폐시키는 경우는 인골의 부식을 촉진시키게 되므로 절대 금한다.

3. 인골이 말해 주는 고대

1) 김해 대성동고분군

경성대학교박물관이 2001년 조사한 김해 대성동고분에서는 57호 목곽묘의 북서 모서리 부분의 외부에서 인골이 출토되었다. 인골은 57호 목곽묘의 바닥면 보다 약 70cm 상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57호 목곽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57호 목곽묘에서 확인된 인골은 모두 3개

체로 각 인골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3개체의 인골, 모두 성별에서는 여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령에서는 A호 인골이 성년후반(30대), B호 인골이 성년전반(20대), C호 인골이 성년(20~30대)으로 판정되었다. 관골에서는 3개체의 여성 모두에서 1회 내지 2회의 出産痕이 확인되어 이들 3개체가 적어도 사실적인 미혼의 여성들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그 자식도 존재하였을 인물들일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추정신장에서는 A호 인골이 152.6cm, B호 인골이 148.7cm, C호 인골이 147.7cm여서, 추정신장에서 보면 그 크기에서 A호-B호-C호 여성의 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A호 인골은 B호 인골보다 거의 4cm나 큰 편이어서 동일한 공간에 매장되었을 경우 B호 인골 보다는 신장이 큰 관계로 자연히 흉부 쪽으로 목을 강하게 굽히게 되며 그와 함께 상반신도 다소 들려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출토상태에서 추정되는 것은 이들 인골들이 먼저 매장되고 부장품들이 부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장품들이 우선하여 부장된 다음, 동일한 공간에 이들 인골들이 매장되어짐으로써 다소 신장이 적은 B호 인골이 伸展葬의 형태를 보이는 것에 비하여 추정신장이 4cm나 큰 A호 인골은 두개골과 목부분이 강하게 흉부 쪽으로 굽어진 형태를 취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下肢骨에서는 3개체 모두가 여성이면서도 남성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여성에 비하여 大腿骨 粗線과 脛骨의 가자미근선이 발달한 편이다. 이것은 이들 부위에 있는 근육이 발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적어도 이 세 여성은 노동과 관련한 일을 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A호 여성과 B호 여성의 치아에서는 齒冠 표면에 에나멜질감형성이 확인된다. 이것은 A호·B호 여성이 발육기에 영양장애 즉 질병에 의한 영양공급 장애나 영양섭취의 곤란에 의한 장애, 어린이 편식에 의한 장애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김해 유하리고분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금관가야의 2대왕인 거등왕(居登王:199~259)의 능이라고 전해져 오던 김해 유하리고분을 발굴하였다. 여기서 9개체의 인골이 검출되어 분석을 하였다. 결과 성인 여성 5개체와 어린이 인골 4개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무덤은 7세기의 횡혈식석실묘로써 계속적으로 추가장이 가능한 무덤이었고 인골의 출토상태에서도 시간차를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결국 이 무덤은 居登王이 출현하는 시기와는 훨씬 동떨어진 시기의 것이었고 출토된 인골도 모두 여성이거나 어린이여서, 居登王으로 비정할 수 있는 남성인골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傳居登王陵>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무덤의 인골들이 시기차 내지는 세대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그 출토인골의 구성으로 볼 때 반드시 남성이 죽어야 묘를 축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즉 만약 부계계승권이 확립되어진 사회였다면 첫 피장자가 남성이거나 적어도 남성의 배경을 등에 업은 여성이 먼저 죽어서 묻혔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남성이 매장되어야 할 것인데 이 무덤에서는 남성인골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여성도 사회적으로 무덤의 축조계기가 되는 인물일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가야인과 왜인

일본은 명치시대를 지나면서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관심 속에 완성된 것이 이른바 인종교체설과 일본인설이다. 즉 지금의 일본인은 죠몽시대 사람이 아니라 야요이시대 이후 대륙에서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인종교체설과 현재의 일본인은 일본 자국내에서 형성되었다는 일본인설이다. 이것은 이후 야요이시대 이

후 계속되는 대륙종족의 도래를 인정하는 혼혈설과 일본인은 죠몽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전적으로는 연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변형설로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혼혈성과 변형설은 다시 도래설과 이행설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도래설은 金關丈夫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죠몽인과 구분되는 야요이인의 두개계측치 특징이 같은 九州 남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九州 북부와 機內地方에만 나타나는 점과 그것이 후속되지 않는점 등을 들어, 도래인의 출발지를 신장의 크기로 보아 한반도 남부로 추정한 설이다. 즉 도래가 죠몽시대 만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北部九州·山口 지방에서는 도이가하마(土井ケ浜)의 야요이인과 같은 형질을 나타내지만, 南九州로는 도래인이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죠몽인의 특징이 계승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에 비해 機內地方에서는 고분시대 이후로도 도래가 지속된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이행설은 鈴木尙에 의해 주장되던 것으로, 신체변화는 생활문화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인 만큼 야요이인은 도래가 아니라 쌀의 보급(도작농경의 시작)에 의한 식생활 개선이 얼굴을 비롯한 제반 체질의 변화를 낳은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 상반된 두 주장은 鈴木가 金關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일단락된다. 이후 도래설은 일본에 정착화 되면서 또 다른 세부적 분리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도래인의 출발지와 그 수에 관한 것이다. 먼저 도래인의 출발지를 한반도로 보는 견해와 북방아시아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 출발지의 문제는 고고학의 성과에서 야요이시대의 문화형성에 한반도의 문화가 상당 관련됨이 증명되어 왔다. 그러한 고고학 성과들에 힘입어 도래인의 출발지를 한반도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주변의 정황이 모두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그 직접적인 증거의 한국인의 형질에 대한 시대적·지역적 분석이 없는 지금의 형편에서는 도래인의 출발지를 한반도로 보는 견해에 박차를 가하던가, 또는 야요이시대 문화에 한반

도인의 기여하였음을 힘있게 주장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도래인 수도 소수이냐 대량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도래인 집단이 야요이시대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써 야요이사회 형성에 영향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 재래민에 포함되어 점점 용해되어 갔는지에 대한 대답도 한국에서의 고인골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현재로서는 비교·검토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일본인의 원류를 찾는데 있어서, 비교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중국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한국인에 대한 형질인류학적 성과를 축적시켜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고대 문화형성에 정신적·물질적 영향 뿐 아니라 형질적 영향도 얼마나 미쳤던가를 증명해 내어야 할 것이다.

4. 고고자료 인골에 거는 기대

모든 일에는 그 시작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인골의 역할이 고고학에서 점점 평가되어지면서 고고학 연구자들의 인골인식은 높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인골을 통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소개도 점점 퍼져가고 있다. 얼굴을 복원할 수도 있고, 옛사람의 식생활을 파악할 수도 있고, 순장이 이루어졌는지 어떤지에 대한 당시 사회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인골에게는 너무도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치 만병통치약을 손에 넣은 것처럼 들떠 있기에 앞서 직시해야할 현실이 있다. 이 모든 작업들의 시작은 발굴현장에서 출토되는 인골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성실히 인골 발굴을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연구에 대한 기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다.

Note.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뼈?뼈!〉 공개강연
-문화를 읽는 새로운 코드, 고인골-

- 일시 : 2015.5.6.~5.27. 매주 수, 오후 2~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참가방법 : 현장접수
- 문의 : 055-320-6844~5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5.6.	고인골로 본 가야의 순장 문화	김수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2	5.13.	옛 사람의 얼굴을 복원하다	이원준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연구원	
3	5.20.	뼈에 기록된 식생활	이준정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4	5.27.	고인골 연구	김재현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